

2 0 1 8 . 1 1 . 1 2 월 / 통 권 1 0 2 호

독립정신

권두언 독립운동하시면서, 징역살이 하시면서,
나라가 꿈에라도 두 쪽으로 나뉠 것을 생각이나 하셨을까?

축사 김자동 선생 회고록 발간에 부처

“민족교과서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운동사의 또 다른 광맥

특집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1주년 기념공연
다큐멘타리 음악극 <길 위의 나라>

“여러분께서 계셨기에 지금 이 나라가 있습니다.”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임시정부는 나라 안팎으로 정부의 존재를 널리 알리고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하여 신문을 발행하였다.

1919년 8월 21일 《獨立》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이 신문은 10월 25일 《獨立新聞》으로, 1924년 1월 1일에는 《독립신문》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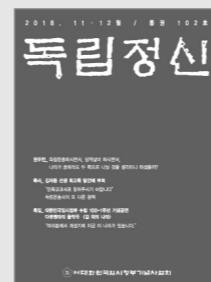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제헌헌법의 역사적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이다. 문화재청은 임시정부 주요 인사였던 조소앙(1887~1958)이 삼군주의를 바탕으로 건국 방침을 적은 친필 문서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독립정신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보 「독립정신」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첫 기관지인 「독립」의 자주독립정신과 민족 정통성을 이어받고자 합니다.

2018 11*12

통권 102호



발행인 | 김자동

편집인 | 임재경

편집위원 | 곽태원, 김대영, 원희복, 이일선, 박덕진, 최석우, 안정흠
편집·디자인 | 대관인쇄

우 03173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길 19 로얄빌딩 602호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TEL : (02)3210-0411 | FAX : (02)732-2870 | E-mail : kpg19197837@daum.net

홈페이지 : www.kopogo.com

가격 : 5,000원



04

권두언_

독립운동하시면서, 징역살이 하시면서, 나라가 꿈에라도
두 쪽으로 나뉠 것을 생각이나 하셨을까?

| 이부영



07

축사_ 김자동 선생 회고록 발간에 부쳐

“민족교과서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한완상



12

축사_ 김자동 선생 회고록 발간에 부쳐

독립운동사의 또 다른 광맥

| 이만열

20

특집_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1주년 기념공연

다큐멘타리 음악극 〈길 위의 나라〉

“여러분께서 계셨기에 지금 이 나라가 있습니다.”

| 편집부

28

우리 고장의 독립운동_

경기도 고양시의 독립운동 이야기
| 정동일

33

임정서가_

촛불민중혁명사
서울 가는 길
이 땅에 정의를
외솔 최현배 평전(우리말 지킴이)
붉은전쟁 1~3 : 평더화이의 6·25
| 편집부

37

독립정신 이모저모

45

순국선열의 날 정부포상자 명단



29



37



39

독립운동하시면서, 징역살이 하시면서, 나라가 꿈에라도 두 쪽으로 나뉠 것을 생각이나 하셨을까?

- 남북지도자는 한국전쟁 피해자가족에게 사과해야-



이 부 영
동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지난 3월 1일부터 시작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은빛순례단의 전국 순례가 내년 3월 1일 3·1독립운동 100주년에 대단원을 맞이한다. 서울의 탑골공원과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시작된 순례 여정이 11월 22일 연평도-백령도 순례로 끝난다. 전국의 시도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시도별 순례 참여자들을 다시 모셔서 우리가 지난 3·1절 99주년에 다짐했던 마음을 다시 모으려 할 것이다. 그것은 지난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그 무슨 지역 이념 종교 남녀노소 신분의 차별을 생각하셨을까, 독립운동 하시면서 목숨을 바치시고 고문당하시고 징역살이 하시면서 독립되면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뉠 것으로 생각이라도 하셨을까, 꿈에라도 그런 생각은 하셨을 리 없었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방이 되고 미군과 소련군이 남북을 분단하여 점령하고 나자 그들이 의도하는 대로 나라를 둘로 쪼개자는 세력들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기 시작했다. 남쪽의 이승만이 1946년 6월 5일 이른바 ‘정읍발언’으로 남쪽에 먼저 분단 정부를 세우겠다고 발언하는 것으로 신호탄이 올랐다. 우리가 이런 꼴 보려고 목숨 바쳐 온갖 고생하면서 독립운동 했느냐고 각지에서 들고 일어났다. 대구의 10·1항쟁, 제주의

4·3항쟁이 그런 움직임이었다. 1948년의 여수순천 14연대 군사반란 사건은 제주도 주민들이 분단정부 세우는 것에 반대하는 것인데, 그런 올바른 주장하는 주민들을 토벌하려는 명령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분단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각지의 저항운동에 대해서 미군정은 무자비한 탄압과 학살로 진압했다. 그 저항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피학살자들 말고 남은 사람들이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다시 ‘인간청소’를 당했다.

지난 5월 22일 순천에서 은빛순례 행사를 가졌다. 순천의 ‘여순사건 피해자 위령비’를 참배하고 술과 떡을 제례에 올렸다. 30여 명이 모인 유족들은 은빛순례자들과 함께 위령비에 큰절을 드렸다. 저는 아래와 같이 추모사를 올렸다.

“여순 사건에 돌아가신 분들은 좌익인사들만 있는 게 아니었다. 나라가 둘로 갈라진다는 것에 반대한 분들도 많이 희생됐다. 대표적인 분이 김구 선생이셨다. 여러분들 너무 기죽을 필요 없다.”

저의 이런 말에 유족들은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고 했다. 듣는 말이라고는 어려서부터 “빨갱이 새끼”라는 말뿐이었고 군대에 가도 장교는 될 수 없었고, 공무원은 될 생각부터 못했으며, 외국에도 나갈 수 없었다고 했다. 연좌제의 족쇄에 묶여 살아야 했다.

저는 유족들에게 “정부에서 풀어주기만 기다려서는 어렵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저기 죽도봉 전몰군경 현충탑에 함께 참배하자. 피해자들이 용서하는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가해자 가족들도 마음을 열고 나올 수 있다. 이 길이 이기는 길이다.”라면서 함께 갈 것을 종용했다. 도저히 그곳에 가서 참배할 수 없다고 거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 유족회장이 참배하자고 권유해서 모두 따라 나섰다.

저는 전몰군경들도 윗사람들의 부당한 명령에 동원된 또 다른 피해자들이라고 설명해주었다. 우리 일행과 유족들은 전몰군경현충탑에 함께 술과 떡을 올리고 참배했다. 유족들은 정성을 다해 전몰군경 영령들에게 자신들의 부모들에게 참배하는 마음으로 절했다. 제례를 모두 마치고 저는 유족들에게 “마음이 어떠냐”고 물었다. 그들은 “참배를 하고 났더니 마음이 가라앉고 편하다”고 의외의 답변을 했다. 바로 이런 치유의 순간을 지나온 사람들, 특히 피해자

들은 마음의 불안, 원망 복수의 마음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다. 평정의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게 된다.

지난 11월 3일 저는 충남 태안군 한국전쟁희생자 유족회가 가지는 희생자 백서 출판기념회와 위령제에 참석했다. 1,050명의 명단이 확인된 태안학살 백서의 출판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사건이나 다름없었다. 정석희 회장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삼촌을 같은 날 잃은 기막힌 운명을 겪고 이겨낸 사람이었다.

저는 전국에서 모여든 피학살자 유가족회 대표들과 유족들에게 순천 피해자 가족들에게 한 것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많은 유족들이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한국전 종전선언이 성사되는 날, 남북의 지도자들은 한국전쟁으로 희생된 한반도 주민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념과 정치적 명분을 내세워 남북의 주민들을 죽이고 남은 가족들에게 표현할 길 없는 고통을 안겨준 데 대해 엄숙히 사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이 말하는 어떤 합의도 진정성을 가질 수 없다.” 태안군청 강당은 유족들이 친 박수소리로 가득했다. ☺

“민족교과서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상 3·1운동100주년 위원장



지난주에 제가 지금 속해 있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충청과 상하이를 다녀왔습니다. 김자동 선생의 두 번째 회고록을 늦게 받았지만 열심히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먼저 91세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 출간도 축하드립니다.

너무 감동을 받아서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다음에 역사학자가 축사를 하시니 저는 중요한 정치사적 의미 몇 가지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민족의 억울한 고통과 트라우마를 국민과 민족이 기억못한다면, 그 국민과 민족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문제는 그 억울하고 부당한 고통을 증언해주는 책들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학교 교과서가 전달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그 억울한 것을 제가 다 이 짧은 시간에 말할 수는 없지요.

러일전쟁이 끝나자 해양세력 일본은 서구 패권 해양세력의 반열에 서고자 했지요. 그때 미국과 일본 간에 비밀스런 결탁이 있어서 그 결과 우리나라

일본의 식민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긴 삼십육년간의 억울한 고통을 겪게 되었죠. 이런 역사의 사실을 국민들은 제대로 모릅니다.

그런데 일제에 의해 강점권을 당하고 9년 밖에 안 된 1919년에 엄청난 혁명적 운동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3·1운동’입니다. 전체 국민의 10% 이상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는데, 그것이 평화와 비폭력을 내세운 공공적이고 감동적인 혁명운동이었습니다. 그 불이 중국으로 떨어져서 5·4반제운동이 되었고요. 최근에 프랑스에서 공개된 공식 정부자료에 의하면, 우사 김규식 선생을 파리에서 만난 월남의 젊은 20대 청년지도자 호치민이 우사 선생을 통해 너무 감동을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가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실에 조만간 학계에서 주목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3·1운동이 갖고 있는 그 감동적이고 공공적인 가치, 그렇기 때문에 사회변혁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3·1운동이 일어나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는데 우국열사들이 국권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강토와 국민주권과 독립을 위해 노력했음을 새삼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주권도 없고, 영토도 없고, 국민도 없는 정부이므로 임정을 건국의 시작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는 참으로 한심한 논의입니다. 우리는 주권, 국민, 영토를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부당하게 강탈당했습니다. 도둑놈이 우리 집에 와서 문패를 떼고 우리를 쫓아내고 자기 문패를 붙이고 주인노릇 했는데, 그렇게 강탈했던 제국주의 논리에서 보니 그것이 정부답지 않게 여겨진 것이죠. 가슴 아픈 일이죠. 이런 감동적인 3·1 평화운동, 시민운동, 국민운동의 독려를 받아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세워져서 그곳에서 우국열사들이 나라를 되찾고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슴 아픈 것은 제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임시정부라는 말에 ‘임시’가 붙은 것은 일본이 패망하면 그 임시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정상국가가 될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광복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진짜 광복이 아니었고, 진짜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삼십육년의 억울한 고통이 칠십이년의 분단체제로 이어졌기에 민족의 고통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의 고통은 그때부터 더

욱 억울하게 깊어지고 넓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김자동 선생의 두 번째 자서전은 그 고통을 절절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상하이에서 김구 선생의 무릎에서 살았지만 이제 청년이 되어가면서 칠십여 년의 고통을 더욱 설득력 있게 증언한 것입니다. 아주 값진 증언입니다. 그 고통에 대한 증언이 이 책에 나오기 때문에 저는 감히 김자동 선생의 두 번째 이 책을 ‘민족교과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읽으시고, 후손들이 많이 읽게 권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민족의 억울한 고통사(苦痛史)가 별로 없으니까 우리 민족이 발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번에 충칭과 상하이에 가서 임시정부 요인들이 찍은 계단에 마침 우리 처남도 그곳에서 광복군으로 있었기 때문에 처남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싶었지만, 부끄러워서 부르지 못하고 속으로 부르고 사진만 찍고 왔습니다. 민족지도자들이 환국 전에 찍은 사진인데 환국한 후에 분단된 현실을 보고 얼마나 절망했겠는가를 역지감지(易地感之)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자동 선생의 두 번째 회고록에서 초점을 몇 가지에 비추어 단상적인 일화만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장덕수 암살사건 때 우리 백범 김구 선생은 증인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나오고 싶지 않았지만,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절 상 나온다고 하신 말씀 중에 우리를 깨우치는 번개처럼 천둥처럼 울리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검사가 “직업이 무엇입니까?”라고 했을 때, “내 직업은 독립운동이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 독립운동을 했다는 말이 아니고,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돌아와 조국에 와보니까 분단된 상황에서 독립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시퍼런 증언입니다. 아직 내가 해야 할 일, 곧 민족독립과 광복의 사명을 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백범의 비상한 다짐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김자동 선생의 그런 메시지를 인용할 때 제가 받아들인 것은 즉, 2018년도 10월 현재에 받아들인 것은 우리도 독립운동을 더욱 열심히 계속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분단이 있는 한, 독립운동은 진행형입니다. 그 진행형이 그 책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민족교과서’라고 부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는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5·10선거 때 단독정부를 주장했던 이승만 계열이 상당히 약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소속이 제일 많

이 표를 얻었습니다. 이 때 저자께서는 백범과 우사가 적극 참여했다면 제1당이 되었을 것임을 안타까워했는데, 저는 그 안타까움에 보태서 만약 그분들이 나가서 제1당이 되어서 냉전·친일문화와 구조를 청산했다면 오늘 우리 민족 현실이 이 상태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더 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저의 아픔을 김자동 선생의 안타까움에 더하고 싶습니다.

48년 8월 15일, 같은 해 9월 9일 조국 강토에는 국가가 분단이 되었습니다. 이미 백범과 우사가 그전에 북한에 정치지도자연선희의 때 가시면서 단독정부를 반대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북한에도 단독정부가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절망하시고 내려오면서 38선에서 베개를 삼고 죽더라도 분단을 막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즉 분단을 막는다는 것은 민족상잔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조직입니다. 폭력집단 간에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죠. 그 어른들의 예언대로 1950년 민족상잔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을 안타까워하는 표현이 김자동 선생의 두 번째 자서전에 나오는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김자동 선생은 언론인으로서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을 번역하지 않았나 하고 짐작합니다. 저도 그 저자를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이 책은 그 당시 대학생들이 많이 읽었고요. 한국 역사의 고통을 증언해주는데 크게 기여한 책이고요. 그만큼 민족의 자주와 해방, 민주주의에 영향을 끼친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승만 초대대통령이 조소앙 선생을 통해 백범에게 보낸 경고가 있습니다. 백범이 공산당과 내통하면 나라 걱정하는 젊은이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임을 경고했을 때, 백범은 태산 같은 자세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포가 나를 죽일 일을 나는 하지 않았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지금의 독립운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과거가 아니고 현재가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라고 해석했는데,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까, 잠시 성찰해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2018년에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백범 같은 분을 색깔론으로 폭력적으로 제거하려고 한다면 그는 우리 동포가 아니라는 뜻일 것입니다. 나는 동포를 죽일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소앙 선생의 이승만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이비 애국세력에 의해 돌아가셨죠. 문제는 그게 지난날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그 비극이 진행될 수 있다고 저는 염려하기 때문에 오늘 김자동 선생의 자서전이 교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과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자동 선생의 회고록 끝머리에 가서 어머니께서 88세 미수 때 “이 연세에 무슨 소망이 있느냐?”라고 누가 물었대요. “통일이 되었다면”하고 답하셨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입니다. 우리 김자동 선생의 가계를 보면 감동적인 스토리가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인 둘째 딸 김선현 대표와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참 내공이 있는 분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역시 그 아버지의 그 딸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손자요, 그 엄마의 기가 막힌 딸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위원으로 모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민주공화제를 지지하더라도, 평화가 없고 분단된 체제하에서는 진짜 민주공화국이 잘 안됩니다. 복지도 안 되고요. 인권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단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정치적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분단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도, 공화제도, 노동3권도 잘 안 됩니다. 분단 극복이 우리가 정말 민주공화제로 가는, 그리고 성숙한 복지제도를 이루하는 진정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김자동 소년의 오래된 꿈을 우리는 이 책에서 확인하면서 우리의 보다 밝고 맑은 미래를 살아가는 길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역사상 어떤 의미에서는 최초로, 특히 분단된 이후 최초로, 분단극복을 위해 ‘평화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런 평화흐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모든 국민들이 그 꿈을 이루는 데 길잡이가 되고 동력이 되는 김자동 선생의 두 번째 회고록을 교과서로, 지침으로, 비전으로 읽고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운동사의 또 다른 광맥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오늘 김자동 선생님의 만 구순을 맞아 ‘회고록’ <영원한 임시정부 소년>의 간행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제가 축사를 하게 되어 송구스러운 한편 기쁘기도 합니다. 선생님 내외분, 앞으로 더욱 강녕하시어 하늘이 주신 수를 복되게 누리시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며칠 전 제게 이 책이 전달되었기에 처음부터 전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읽으면서 느끼고 배웠던 것을 필설로 다 말할 수는 없고, 다만 몇 가지 느낀 것을 중심으로 간단히 언급하는 것으로 축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우선 8년 전에 한겨례에 연재하여 책으로 묶었던 <임정의 품안에서>라는 책과는 거의 같은 시기와 경험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맛을 풍겨주었습니다. 지금보다 기억력도, 건강도 좋았을 그때 직접 원고를 쓰신 것 못지않게 이번의 글은 선생님의 기억력과 신념을 더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마도 <임정의 품안에서>를 쓰실 때 유념해 두었던 점들을 이

번에 더 정확하게 풀어쓰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선 이 책에 등장하는 수백 명의 국내외 인물들에 대해 그 본명은 물론 아호와 집안 내력, 교우관계 및 그 사상적 사회경제적 내력까지 기억하고 약간의 평가까지 가하실 수 있다는 데 대해 놀라웠습니다. 해방 직후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소개하는 대목에서는, 그 방면의 전문가가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섭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것을 의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동아일보 오보를 서술하는 부분은 그것이 그 뒤 우리 민족사에 어떤 비극을 안겨주었는가를 생각하게 만든 것으로 어찌 단순한 오보였다는 것으로 변명되겠느냐고 헐문하는 듯했습니다. 이런 것은 오늘날 전문가들도 제대로 꾸짖지 못하는 조용한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저자는 또 뉴욕타임스의 알타회담 비밀문서를 통해 미국이 한반도를 신탁통치하는 데에 앞장섰다는 것도 밝혔습니다(p288~293).

제가 여기에서 굳이 이 책의 내용을 다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책의 페이지마다 풍겨져 나오는 선생님의 총기와 인품을 이해하는 데는 이 책의 경험적 사례들이 잘 중언해 주고 있습니다. 충칭에 거하실 때, 학병에서 탈출한 광복군으로부터 듣고 배운 시사와 국제관계 등은 어린 시절 선생님의 의식을 확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고, 청소년 시절부터 백범을 비롯한 임시정부의 스승들을 직접 대하면서는 선생님의 세계관을 넓히는 데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그런 시견을 토대로 선생님의 아버님께서 중국 중앙방송국에서 단파방송을 진행할 때 그 원고를 젊은 나이의 선생님께서 직접 쓸 수 있었던 것은 독립운동가들의 시견과 세계관을 전수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p79). 때문에 충칭 시절의 임정요인들과 그들의 삶이 이 책의 주인공을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지 않았나 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대하면 우선 아흔이 넘는 연세에 어떻게 아직도 그 맑은 총기를 유지하고 있는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은 평소 저와 대면해서는 말씀이 적으시고 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지도 않으셨기 때문에 상해 자상 항저우 창시 광저우 류저우 치창 및 충칭 시절의 기억들을 그렇게 뚜렷이 간직하고 계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의 과묵하신 성품이 끝끝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총기를 발하고 계신지 놀랍습니다. 이번에도 지난번 한겨례의 연재 못지않게 중국에서의 기억들을 고스란히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아마

도 여백이 더 주어지면 더 자세한 내용들이 부연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등장하는 인물들도 많거니와 그분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족보와 관련 인물들까지 다 꿰고 있으니, 아마도 이런 기억의 보고 때문에 임정 독립 운동의 사전적인 존재일 수도 있겠다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저희 같이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기록을 통해서는 도저히 찾아낼 수 없는 인물들의 삶과 생각이나, 그들과 교제를 나누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고스란히 이 책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기에 독립운동사의 또 다른 광맥을 이 책을 통해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독립운동사의 산 증거로서의 이 광맥은 선생님의 총기와 기억력으로써만 복원해낼 수 있는 것이기에 후학들은 선생님의 그 증언으로 그때의 상황을 그림 그리듯이 이해 할 수 있게 되었고, 독립운동이라는 화두가 갖는 화석같은 거대한 바위에 섬세한 세필을 통해 색깔을 칠해 아름다운 풍경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 선생님의 그런 증언을 통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각양각색의 산전초목이 형편에 따른 모습을 갖게 되듯 독립운동사에도 살이 붙고 생명 있는 호흡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이 회고록에는 선생님의 인간으로서의 성장과정이 촘촘히 엮여져 있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나 청소년 시절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했던 그 삶이 체질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이 책은 선생님의 인품을 조용히 비춰주면서 그런 인품의 배경에 역사의식이 도도히 흐르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그 인품 또한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체질화한 데서 형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회고록이라고 하면 거의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주인공의 미담을 과장하고 약점은 아예 은폐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아무리 인간적인 실수를 했더라도 그것은 시대적 환경이나 이웃의 탓으로 돌리고 오히려 그 한계는 주인공의 인간미를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작동합니다. 주인공의 작은 예지는 그 시대를 통찰하는 예언자적 혜안으로 확대되고, 그가 맵은 한 마디는 시대를 호령하는 성언이 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 회고록을 너무 자주 대해 온 저로서는 선생님의 이 회고록은 담담하게 한 시대를 있는 그대로 보도록 하고, 인간관계를 인간 이상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며, 인간이 갖는 한계를 스스럼없이 받아들이고 혹시라도 그에게 있는 용기는 영웅적인 것으로서가 아니라 나약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

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회고록에 나타나는 주변의 인물들은 결코 신의 경지에 이른 영웅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필부이지만 그들의 정직하고도 정의로운 삶은 오히려 인간을 당당하게 만들어간다는 것을 묘사해 놓았습니다.

회고록은 해방 후를 다루는 부분에서는 선생님의 삶의 궤적이 어떤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보성중학을 마치고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것, 6·25를 맞아 미군부대에 삶을 의탁하면서 영어를 능숙하게 익히게 된 것, 거의 완벽한 중국어와 영어가 6·25 정국에서 선생님의 삶을 어떻게 규정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선생님께서 결코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초기의 언론활동 기간도 잘 비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방 정국의 한 젊은 지식인의 삶의 상황이면서, 독립운동의 후예로서 영어로 세계관을 넓힌 한 지식인이 전쟁판의 부정과 부패에 대해 어떻게 자신의 지성과 신념을 올곧게 지켜 나가게 되었는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고하 몽양 설산 백범이 차례로 흥탄에 쓰러져 가는 해방 정국과 정부 수립 후의 이승만 정권, 군사정권을 경험하면서 이를 정권과는 결코 화해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독재 부패 반통일 세력과의 비타협은 외로운 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예로서 품위를 유지하는 길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타협하지 않고 때로는 싸우는 길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성품이 모질지 못해서 투쟁의 깃발은 들지 않았으나, 당시의 삶은 분단 독재 군사정권의 어느 시기에도 자기를 거기에 의탁할 수 없었으며, 고립된 자아로 정체성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 회고록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사 후예로서의 올곧은 삶은 그하기에 험난한 가시밭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삶의 체취를, 선생님은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 책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저자의 인품이요 신념이요 사상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책은 은은한 향기를 발하면서 저자의 감춰진 인품을 조금씩 살짝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책에 나타난 저자의 인생관이나 사상 등에 대한 몇몇 사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자는 자신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언명 한다. 동포끼리 총부리를 겨누고 싸우기 싫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지만 그것을 본인 자신이 잘한 일로 보지는 않는다. 그의 군대 가지 않은 이유다.

“이 자리를 빌려 고백하건대 나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마침 평계도 있었다. 1951년 초 숙동 형을 따라 부산으로 내려갔다. 가서 보니 평소 학교에서 반공투사라고 깎죽대고 떠들던 자들, 한민당이나 일제 앞잡이 하던 집안의 자식들이 모두 부산에 모여 있었다. 나는 속으로 ‘반공은 군대에 지원해 나가야 반공이지, 부산에서 반공하는 거냐?’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친구한테 “저 사람들도 군대 안 나가는데 내가 왜 가나, 나도 안 나간다”고 말한 적이 있다. 물론 그 이유만으로 군대에 안 간 것은 아니다. 당시 나는 동포들끼리 총부리를 겨누고 싸워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그때 나는 내 손가락을 자를지언정, 군대는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나 대신에 누군가 그 자리를 채웠을 것을 생각하면 잘한 행동이라고만 할 수도 없겠다(p262-263).”

저자의 미국관을 보여주는 대목이 더러 보인다. 저자는 관훈클럽 창립 때에 주한미국대사관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언론인으로서 거기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를 미국과 관련시켰다. “내가 관훈클럽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미국을 별로 좋지 않게 봤기 때문이었다. 당시에도 미국은 한국을 제 마음대로 쥐고 흔들었는데 분단 책임도 따지고 보면 미국에 있다. 나는 역대 한국 정권이 미국의 괴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인지 이후 미국을 여러 번 다녀왔지만 별로 호감이 가지 않았다. 나 스스로를 굳이 반미주의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미국이 ‘제국’이라는 생각은 여전하다(p309).”

저자는 자신의 사상적 성향을 뚜렷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간간히 암시하는 대목이 있다. 가까운 친구 조규택이 진보당 창당에 가입하라는 것을 권할 때 와 윤길중에 대한 평에서 보인다. 진보당 입당을 권할 때 저자는 “이승만을 상대로 무슨 놈의 합법 정당을 만드냐? 뒤엎어야지!”라고 말하면서 거절했다. 내가 <조선일보>를 사직하기 직전의 일이다. 나중에 조규택은 진보당 사건에 연루돼 곤욕을 치렀다. 만약 그때 조규택의 권유를 받아들였더라면 나도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나도 정치할 기회가 더러 있었다. 진보당 때도 그랬고, 나중에 박정희가 공화당을 만들 때도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두 번 모두 거절했다. 따지고 보면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

었다. 정치인이 돼보겠다는 생각을 아주 안 한 것도 아니었다. 죽산은 독립운동가 출신으로 농림부장관 때 토지개혁도 그만하면 잘하고 해서 나는 그런대로 좋게 생각하였다. 죽산과 안면은 없었지만 조규택을 통하여 진보당과 연을 맺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정치는 나의 길이 아니라는 결론을 일찌감치 내렸다. 가장 큰 이유는 타협이 필요한 현실 정치에 나를 맞추기 어려울 것 같았기 때문이다(p331).” 그리고 윤길중에 대해서는 “조규택 말고도 진보당 간부 출신 가운데 아는 사람이 몇 명 있었다. 진보당 간사장을 지낸 윤길중(국회부의장)도 그런 사람이다. 그는 한때 나의 바둑친구였다. 내가 서소문 입구 옛 대한일보 빌딩에 사무실을 냈을 때 자주 내 방에 와서 바둑을 두곤 했다. 급수로는 1급이었는데 센 바둑이어서 내가 늘 네다섯 점을 놓고 뒀다. 그 후로도 친하게 지냈다. 그런데 1980년대 들어 전두환 정권의 민주정의당에 들어가 당대표를 지내는 걸 보고 화가 나서 인연을 끊어버렸다(p331-332).”라고 말했다.

공화당 창당 때 대변인으로 발탁될 수도 있었던 기회를 박차버린 저자는 자신의 언론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술회했다. “1954년 <조선일보> 입사로부터 시작된 나의 언론계 생활은 꼭 10년 만에 막을 내렸다. 당시 시대 상황에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여러 신문사를 옮겨 다녔다. 10년 세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내 인생에서는 가장 치열하게 산 시기가 아니었나 싶다. 기자 시절을 돌이켜 볼 때 나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은 없는 것 같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p406).”

저자가 스스로 정치적 성향을 밝힌 대목이 있다. “대학 다닐 때 내 별명이 ‘미스터 야당’이었다. 보성·서울법대 동창생인 정준우가 붙여준 별명이었다. 당시만 해도 이승만 욕을 함부로 못하던 시절인데 나는 수시로 이승만을 욕하고, 자유당을 욕하고 그랬다. <조선일보> 다니던 시절에도 그랬다. <조선일보> 맞은편 국제빌딩 골목에 상록수다방이라고 있었다. 기자들은 무교탕반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이곳에 모여 잡담을 하곤 했다.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끝에 내가 이승만을 성토하기 시작하면 다들 ‘이제 들어가야지’ 하며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사라졌다(p439).”

언론인 생활을 끝낸 저자는 오파상 등 사업에도 손을 댔으나 “동업자로부터 배신을 당한 후 오파상을 끝으로 사업이든 월급쟁이든 직장 생활은 막을 내렸다(p420).” 그런 시련 끝에 오히려 그의 어학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일월서각의 도움으로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을 번역하여 한국 학계에 큰 공헌을 끼치게 되었고, 이어서 레닌의 부인 크루프스카야가 펴낸 〈레닌의 회상〉, ‘마오이스트 소설가’로 불리는 한스원 Han Suyin이 쓴 〈모택동전기〉(전 4권), 러시아 10월혁명을 소재로 한 미하일 솔로호프의 장편소설 〈고요한 돈강〉등을 번역했다.

선생님은 이 책을 통해 독립운동에 그렇게 힘썼으면서도 아직도 서훈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여러 곳에서 표현하고 있다. 이 책은 독립운동의 빛나는 역사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제 말기 훼철한 이들의 모습도 잔잔한 음성이지만 매서운 회초리처럼 들고 있는 곳도 있다. 이상범 화백(p42)에 대한 비판이 그 중 하나다. 또 해방 정국에서 민족사를 그르친 이들(장택상 조병옥 등)에 대해서도 회초리를 들고 있다. 또 통일정부 대신 단독정부 구성에 협조한 독립운동가(성재 해공 철기)의 놀라운 변신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서슴지 않는다. 민족일보와 조용수에 대한 애정과 아쉬움은 저자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저자는 가족에 대해서 무신경한 듯하면서도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 이 책 끝 부분에 가족사와 친구 정세영에 대해서 쓰고 있다. 그걸 읽으면 짧은 글이면서도 감동을 주고 있다. 그는 또 독립운동가의 후예로서 현존하는 독립운동 단체와 독립운동자 포상제도 등에 대한 애정어린 충고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생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이제 내 나이 아흔 하나다. 내 인생은 남의 나라 길 위에서 시작되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신 곳,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는 일이 곧 내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정체성이 되었다. 독립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묵묵하게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해내신 두 분의 삶은 내 삶의 지표가 되었다. 그렇게 살아온 삶에 후회는 없다. 상하이에서, 만주 별관에서, 연해주에서, 지구촌 곳곳에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독립된 내 조국을 염원하며 죽음을 불사하고 싸웠다.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 김

산 …… 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선열 앞에서 나는 과연 그분들이 바라는 조국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이것만이 나의 부끄러움으로 남는다. 아버지는 납북되어 북에서 돌아가셨고, 평양 재북인사 묘역에 묻혔다. 할아버지는 아직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상하이 송경령농원 한 모퉁이에 묻혀 있다. 어머니는 대전 현충원에 묻혀 있다. 대를 이어 독립운동을 했던 집안이 분단조국에서 마주한 슬픈 현실이다(p480-481).”

저자는 현단계의 분단상황을 두고 광복의 미완성 단계로 보고 독립운동의 올바른 계승은 통일운동이라고 강조합니다. 저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해방될 나라의 국정지침으로 제시한 ‘건국강령’에서 통일한국의 이념과 지향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은) 의료비 면제, 학비 면제, 최저임금제, 노동자 대표의 경영관리 참여권, 실업보험, 사형제 폐지, 이익이 나면 노동자들에게 똑같이 이익을 나누는 이익균점제, 몰수한 재산은 빈공, 빈농과 일체 무산자의 이익을 위한 국영의 생산기관에 넘길 것 등이 그 내용이었다. 오늘날 복지국가의 원형에 가깝다. 건국강령은 새롭게 건설할 나라에 대한 장대한 전망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이제는 그 정신이 희미해지는 듯하다. 우리는 때만 되면 애국선열들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들이 꿈꾸었던 나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통일된 나라, 복지의 나라가 그분들이 목숨을 던지며 꿈꾸었던 우리의 ‘오래된 미래’라고 생각한다.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꿈꾸었던 나라가 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있고, 그 아이들의 아이가 있고 자자손손 아이들은 태어날 것이다. 그 아이들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꿈꾸었던 오래된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꿈은 현실이 될 것이다.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이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p481-482).”

이게 선생님께서 나라의 미래와 후손을 향한 염원이었습니다. 이 축사를 끝내면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선생님의 통일조국을 향한 이 염원에 동참하는 영광을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오후 5시 세종문화회관)



“여러분께서 계셨기에 지금 이 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1주년 기념공연
다큐멘터리 음악극 <길 위의 나라>



다큐멘터리 음악극 <길 위의 나라>에서 배우들이 합창하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회장 김자동)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다큐멘터리 음악극 <길 위의 나라>가 무대에 올랐다. 이번 공연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가 대한민국 100년의 의미를 새기기 위해 올해 기획한 일련의 사업 가운데 하나로, 음악제 <콘서트&오페라 백년의 약속(2018. 6.1~6.2 예술의전당, 6.18 부산문화회관)>, 영화제 <2018 레지스탕스영화제(2018. 9.6~9.10 서울극장)>에 이어진 문학제 프로그램이다.

<길 위의 나라>는 임시정부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들이 집필한 회고문학 20여 편을 저본으로 삼아, 임시정부가 걸어온 길을 1부 상하이시기(1919~1932), 2부 이동시기(1932~1940), 3부 충칭시기(1940~1945) 세 편으로 재구성한 3부작 다큐멘터리 음악극. 당시 사진 자료와 독립군가와 같은 노래 등



독립군으로 분한 배우들이 독립군가를 부르는 장면

시청각 콘텐츠를 활용해 객석과 감성 교감 효과를 최대한 높였다는 게 제작진의 설명이다.

각 공연은 남녀 젊은이 두 명이 나와 독립운동사를 왜 알아야 하고, 그것이 현재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반문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이어서, 독립운동가로 분한 배우들이 백범 김구, 도산 안창호, 예관 신규식, 우당 이회영 그리고 이봉창·윤봉길 의사 등의 수기와 편지에서 발췌한 대사를 낭독하며 연기한다.



김혜리(수당 정정화 역)



장재권(매현 윤봉길 역)



공연은 원형스크린에 비친 임정자료사진을 배경으로, 배우들이 연기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수당 정정화(동농 김가진의 자부·성엄 김의한의 부인)의 <장강일기>, 한도신(김예진 목사의 부인)의 <꿈 갓흔 옛날 피 압흔 니야기>, 양우조·최선화 부부의 <제시의 일기>, 김효숙(당현 김봉준의 따님)의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나> 등 임시정부 주역들이 남긴 회고록에 실린 귀한 이야기와 무대에 설치된 원형 스크린에 투사된 자료 화면들이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공연은 출연 배우들이 모두 나와 심훈의 <그날의 오면>을 합창하고(첫날 1부 공연), 스크린이 올라가면서 군챔버 오케스트라와 쏘울즈오브서울합창단과 국민

양상불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끝난다.

이번 공연의 예술총감독을 맡은 국민대 공연예술학부 이혜경 교수는 “이 공연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관련 문학유산이 널리 알려져 전 국민, 특히 젊은 세대가 임시정부의 활동과 의미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출을 맡은 이석준은 뮤지컬, 연극, 영화 등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유명 배우다. 현재 연극 <벙커 트릴로지>의 주연배우로 활약하고 있다. 그의 아내 추상미는 해외입양 전쟁고아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감독으로 데뷔, 부부가 각각 연출가로 활동 중이다.

뮤지컬 <위키드>, <프랑켄슈타인>의 히로인이며, 영화 <겨울왕국> 엘사의 노래 더빙으로 사랑받는 박혜나(최선화 역), 연극 <아마데우스>의 지현준, 뮤지컬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의 황만익(김구 역), 김혜리(정정화 역), 임진아(한도신 역), 임현수(이회영 역), 장재권(윤봉길 역) 등이 열연하고, 임혜인 음악감독, 박성민 무대디자이너, 도연 의상디자이너 등이 제작진으로 참여했다.

<길 위의 나라> 공연은 지난 11월 23일, 24일 양일에 걸쳐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열렸다. 특히 공연 첫날인 11월 23일은 73년 전인 1945년 임시정부 요인들이 환국한 날. 이날 공연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김자동 회장과 김숙정 여사 내외, 따님 김선현 이사, 이종찬 임시정부기념관건립위원



공연을 관람하는 김자동 회장과 김숙정 여사 내외

공연 뒤 리셉션 이모저모



3부로 구성된 각 공연은 오늘을 사는 젊은이 두 명의 독백으로 시작된다.

장, 우사 김규식 선생의 손녀 김수옥 여사 등 독립운동 후손들이 객석을 지켰고,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는 그간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임시정부를 지킨 독립운동가들을 기념하는 사업에 진력해왔다. 이 노력이 결실을 맺어, 임시정부의 모든 것을 담을 국민의 역사 공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내년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일에 맞춰 건립 선포식을 연다. 임시정부 관련 문화 콘텐츠 개발과 확산에 힘써온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는 20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에도 더욱 다양할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원형스크린이 올라가고 관객에게 모습을 드러낸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자동 회장이 인사하고 있다.

첫날 공연이 끝난 뒤, 출연 배우들과 제작진, 그리고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 이종찬 임시정부기념관건립위원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해경 예술총감독이 관객과 조촐한 리셉션을 가졌다. 김자동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짧지만 울림이 깊은 인사말로 뜨거운 박수를 받았고, 도종환 장관은 인사 도중 윤봉길 의사가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를 떠올리며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해 장내를 숙연케 했다. 이해경 총감독은 이석준 감독(연출)에게 출연 배우 소개를 부탁했다. 이종찬 위원장, 도종환 장관, 이해경 총감독의 인사 말씀을 지면에 옮긴다.

이종찬 위원장, “문화로 독립운동을 기억하자”

먼저, 이해경 교수와 배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올해가 대한민국 100년입니다. 1948년 관보에, 대한민국 3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대한민국 100년 11월 23일, 김구 선생을 비롯한 임정 요인들이 환국한 날입니다. 이런 날에 다큐멘터리 음악극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행사는 도종환 장관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음악제, 영화제는 기획했는데, 문학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장관의 “문학제를 하셔야죠” 한 말씀에, 오늘 음악극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임시정부기념관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



이종찬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장

다. 다 지어지면, 거기에 이런 콘텐츠들이 들어갑니다. 문화를 통해서 독립운동을 기억하자. 우리의 이 큰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앞으로도 많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장관, “국민의 가슴에 파고드는 프로그램으로 이어졌으면”

객석에 앉아 음악극을 보면서 대목 대목에서 목이 메었습니다. (울먹이며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함) 우리 독립운동이 저항으로서만 의미가 아니라, 순국에 이어지는 비극적 아름다움이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해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셨습니다. 남아 있는 분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감동,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임시정부 100주년을 앞두고 행사를 하겠다고 기획서를 들고 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길 위의 나라.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나라를 어떻게 세웠는지, 국민의 가슴 속에 파고드는 프로그램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김자동 회장님, 오늘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독립운동 후손 여러분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들께서 있어주셔서, 지금 이 나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 예술총감독, “독립운동, 한국의 소중한 문화자산”



이혜경 예술총감독 · 국민대 공연예술학부 교수

이런 귀한 과업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개인의 기념사업회가 아니라 임시정부의 기념사업회를 하시는, 큰마음의 기념사업회를 만들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유지하며 기념관 건립까지 끌고오신 임시정부기념사업회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그동안 학술적으로도 준비한 게 많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의 기록, 임정과 함께 하셨던 분들이 기록해놓으신 게 참 많았구나, 다시 느꼈습니다. 90주년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주신 이봉원 피디님. 글로 사진으로 영상으로 남겨주신 분들, 그분들의 힘으로 이 공연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겪고 가꾼 이 삶과 역사, 이 소중한 컨텐츠로 펼쳐야 할 한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독립운동 이야기

현재 서울로 편입된 고양군 지역을 비롯하여 지금의 고양시 지역에는 독립운동유공자, 애국지사 등으로 추서, 표창 등 받은 인물이 총 74인에 이른다.

이러한 행정구역의 상황을 보면 3·1 독립만세운동의 주체 및 주요 활동지가 서울 외곽의 주변 고양군임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일경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1919년 당시 고양군 지역 주민들은 태극기를 전파하고 탑골공원에서의 만세운동을 배후 지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정동일
고양시청 역사 문화재 전문위원

● 고양 독립운동의 주요 활동

고양지역의 독립운동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었다.

우선 고양시 북한산 일대의 북한산성 일대에서는 의병들의 무장 투쟁이 있었다. 북한산 아래의 의주길 박석고개 등에서 일본군을 습격했고 경기도 북부 지역의 대표적인 연기우 의병장은 북한산과 노고산이 연결되는 흥국사 일대를 근거지로 하여 일본군과 자주 전투를 벌였다. 서울에서 북쪽지방으로 연결되는 의주로, 통일로의 병참 보급에 어려움을 주기 위한 작전의 일환이었다. 이외에도 고양동 혜음령 고개, 퇴폐고개, 노고산 일대에서도 의병들이 항일투쟁을 펼쳤다.

고양지역의 3·1 만세독립운동 역시 대단한 규모로 전개되었다. 고양지역에서 서울시로 편입된 고양군 지역을 제외해도 고양군 곳곳에서 대규모의 만세운동이 있었다. 덕양구 대자동 대자산, 관산동 가장곡산, 행주동 덕양산, 행주나루, 중면 면사무소, 일산장터, 덕이동,



● 일제 항쟁기 고양지역의 상황

일제 강점기 당시의 고양군 행정구역은 현재에 비해 그 면적이 매우 넓었다. 우선 1906년 오랜 기간 동안 양주군 신혈면에 속했던 북한산 및 구파발, 벽제 일부 지역이 새롭게 고양군 지역으로 편입되었다.

이어 1914년 이후에는 현재의 서울 4대문 안쪽과 용산 일부 지역을 제외한 서울의 외곽 지역은 모두 고양군 관할 구역이었다.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현재의 서울시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동구 등), 한지면 (현재의 용산구 일원, 한남동 등), 용강면 (현재의 마포와 여의도 등) 은평면 (현재의 서대문구, 은평면 일원), 뚝도면 (현재의 중랑구, 성동구, 송파구 잠실일부) 지역이 모두 고양군 관할에 있었다.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 당시 고양군의 군청은 현재의 서울 서대문 부근, 그리고 1936년에는 서울 동대문 부근에 고양군 군청이 있었다. 많은 독립운동가, 애국지사 등이 옥고 순국한 서대문형무소 역시 고양군 지역이였다. 독립만세운동 등에 대규모 참여한 현재의 연세대, 고려대 등도 당시에는 고양군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3·1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된 독립운동가들의 재판 기록을 보면 그 주소가 고양군으로 표기된 것을 많이 확인해 볼 수 있다.



고양시 한강가 행주나루 인근에 세워져 있는 도산 안창호, 단재 신채호 선생의 거국가 설명문

송포동, 장릉동, 고양동 일원에서 수많은 독립운동이 있었다.

고양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는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설치하는 등 무장 투쟁을 전개한 김익상 의사, 만주 등지에서 북로군정서, 대한독립군단 총재을 지낸 이범윤 선생, 1919년 민족대표 33인 중 기독교 감리회 대표로 참여한 이필주 선생, 을사늑약 후 친일파 청산의 강경한 상소 후 음독자결한 김석진 선

생, 북로군정서 참모장으로 일본군을 궤멸한 나중소 장군, 언론을 통해 항일운동을 펼친 동암 장효근 선생, 중국 정부와 함께 현병 독립운동을 벌인 우석 장홍 장군, 이외에도 양곡 이가순 선생 등 총 74인의 독립운동가가 서훈, 표창 되었다.

● 고양 독립운동의 주요 특징

고양지역의 독립운동을 좀 더 면밀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고양지역 독립운동의 주체는 주로 민중, 서민층이라는 점이다.

74인의 독립운동가 중에서 70명에 이르는 활동가들의 출신이 농민, 상민, 노동자 등 일반 민중이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고양지역은 서울 용산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경의선이 관통, 경유하는 지역으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산역 등을 독립운동의 주요 루트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수색역, 용산역 등은 일경의 검문검색이 강화되어 있어 비교적 왕래가 편리한 일산역을 독립운동가들이 이용한 것이다.

셋째 3·1 만세독립운동의 횟수와 참여인, 독립운동가의 숫자 등을 통해 볼 때 한국 독립 운동의 중심지임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넷째, 고양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은 불교계, 기독교, 천주교, 천도교, 좌익계열, 우익계열, 국내, 국외, 등 종파와 신분, 계급을 넘어 많은 계층이 참여 했다는 점이다.

다섯 번 째로는 애국계몽운동, 국채보상운동, 의병활동, 만세운동, 무장투쟁, 언론활동, 교육활동, 민족운동 등 다양한 독립운동이 전개 되었다는 점이다.

● 3·1만세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사업 추진

오랜 항일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고양시는 3·1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고양 독립운동 기념탑을 건립하였다. 기념탑 주변에는 고양출신 독립운동가 74인의 주요 행적과 공훈을 기록하여 후대에 독립운동의 역사를 전하고 있다. 또한 독립운동가 양곡 이가순 선생의 송덕비를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수, 정비 하였다. 2018년도에는 자랑스러운 고양의 인물로 고양출신의 독립운동가인 동암 장효근 선생을 선정하여 학술발표회 등을 추진 하였다.

2019년 100주년에는 고양독립운동사 학술발표회, 독립운동 현장에 대한 시민 답사교육, 독립운동에 대한 강좌, 독립운동 유적지에 대한 안내문의 제작 설치, 새로운 독립운동가의 발굴, 항일 음악회 추진, 3·1만세운동의 재현과 체험, 고양독립운동사에 대한 전시, 고양지



독립운동가들의 주요 루트로 활용된 고양 일산역 (경의선)



역 항일운동 관련 책자의 발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100주년을 계기로 평화, 통일에 기여

남과 북이 연결되는 경의선, 자유로, 통일로, 한강이 모두 고양지역을 관통한다. 평화통일, 남북화해, 그리고 대륙진출의 출발점, 그 중심에 고양시가 있다. 3·1독립 만세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고양시는 남과 북이 함께 참여하는 독립운동가의 발굴과 유적의 연계 등을 통한 교류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될 독립운동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평화통일의 상징과도 같은 경의선을 통해 남북이 교류하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용했던 한강의 행주나루, 의주길, 단절된 남북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남북 평화 교류의 길목에 고양시가 있다. 향후 이루어질 남북 평화시대에 고양시도 일조하기 위해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 ☀



한강 배 위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있었다. (사진은 선상 만세운동 재현 모습)

촛불민중혁명사



- 저은이 | 원희복
- 쪽수 | 440쪽
- 출판사 | 말

현직 기자가 쓴 광장의 기록

촛불시위 초기부터 현장에 직접 참여한 필자가 발로 추적하고 그려낸 촛불혁명의 기록. 대개 사람들은 박근혜를 끌어내린 촛불혁명이 2016년 10월 24일 JTBC의 ‘최순실 국정농단 태블릿PC’ 특종보도로 출발해, 해를 넘겨 탄핵 인용으로 끝났다고 여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민주주의 회복의 주체인 민중을 배제하고 있다는 게 필자의 문제의식이다. 원희복 기자는 시위 현장 취재는 물론, 주도한 이들을 일일이 인터뷰하며, 그들의 선언문, 주장과 증언을 하나하나 모으고 분석했다. 이 방대한 기록물의 가치를, 출판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촛불의 시작은 “최소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은 2015년 11월 14일”이라고 말한다. 민노총, 전농, 전교조 등이 참여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주도한 2015년 11월 14일의 제1차 민중총궐기 이후 2016년 말까지 여러 차례의 대규모 민중총궐기집회가 열렸고, 이는 촛불혁명의 마중물이었다.

둘째, 저자는 촛불항쟁의 주체가 포괄적 의미의 시민이라기보다는 노동자, 농민이 중심이 된 민중진영이라고 본다. 대부분의 시민단체와 민주당 등의 정치권이 박근혜 정권의 막파식 통치에 방관하고 있을 때 “해고와 비정규직에 내몰리던 노동자, 신자유주의 농업정책에



신음하던 농민, 친일·독재 미화 국정교과서로 가르쳐야 하는 교사, 자신의 신념을 세우려 탄압받은 진보정당 당원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부모들, 분신과 구속을 겪으며 온몸으로 민주화 역사를 쓴 민주화운동가들”이 민중총궐기를 통해 박근혜 정권에 맞섰다는 것이다. 2015년 11월 14일 제1차 민중총궐기에서 내건 핵심 슬로건은 “박근혜정권 퇴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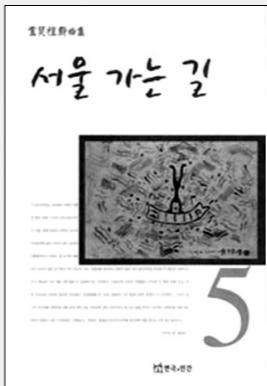
셋째, 이번 촛불의 성격을 ‘촛불민중혁명’이라고 규정했다. 사회과학적으로는 혁명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데 논란의 여지가 있고, 사회구조를 바꾸는 운동으로 발전하지는 못했지만, 4·19를 혁명이라 부르듯 촛불항쟁도 혁명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4월혁명은 이 승만을 추방하는 데 그쳤지만, 촛불혁명은 권력자를 감옥에 넣은 더 위대한 승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촛불혁명이 6월 시민혁명보다 더 진일보한 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촛불혁명은 “30년 전 6월 시민혁명이 키운 노동조합과 농민·통일·빈민·학생 등 이른바 민중세력이 시작한 민중혁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출판사 서평)

필자는 광장에서 쫓겨나는 기자들을 목격하면서, 이른바 ‘기레기(기자+쓰레기)’가 되지 않으려고 이 책을 준비했다고 서문에 밝혔으나, 그는 기자 생활 내내 ‘기레기’와 대척의 길을 걸어왔다. 그가 기자로 살아온 기간은 1987년 6월 항쟁부터 현재까지 제6공화국 시대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이 30년 동안 필자는 한국 현대사에 대한 관심과 고민을 기사와 책으로 꾸준하게 풀어냈다.

저서로, 〈조용수와 민족일보(새누리, 2004)〉, 〈국가가 알려주지 않는 공무원 승진의 비밀(위즈덤하우스, 2011)〉, 〈사랑할 때와 죽을 때 ; 한중 항일혁명가 김찬·도개손 평전(공명, 2015)〉, 〈르포히스토리아 ; 서대문형무소에서 팽목항까지(2016, 한울아카데미)〉 등이 있으며, 〈주간경향〉 기획기사 ‘타임캡슐’과 ‘인물탐구’를 통해 역사 속 사건과 사람들을 만났다. 올해부터는 본지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 가는 길

• 지은이 | 노경식 • 쪽수 | 489쪽 • 출판사 | 연극과인간



희곡으로 승화한 민초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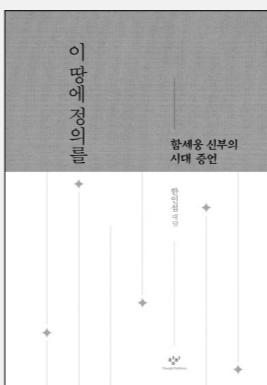
민족의 아팠던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특히 호남 방언을 연극적 언어로 탁월하게 구사하며, 민초의 생명력을 형상화했다는 평가를 받는 원로 극작가 노경식의 작품 모음집. 28편의 작품이 실려 있다. 특히 〈치마〉는 수당 정정화 여사의 회고록 〈장강일기〉를 희곡으로 각색한 작품이라 본회 회원들에게 더 반갑고 그립다.

노경식은 1938년 전라북도 남원 태생으로, 1962년 신흥대학을 졸업한 후, 1965년 개설된 드라마센터 연극아카데미에서 수학했고, 1965년 희곡 〈칠새〉가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본격적인 극작가 생활을 시작했다. 그가 희곡의 무대로 삼은 시대는 삼국시대부터 분단과 한국전쟁까지 우리 역사 전체에 걸쳐 있으며, 이 고난의 역사에서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름 없는 민초의 힘 덕분이었다는 게 그의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다.

이 땅에 정의를

• 지은이 | 함세웅, 한인섭 • 쪽수 | 728쪽 • 출판사 | 창비



“너희들은 먼저 하늘나라와 그의 정의를 행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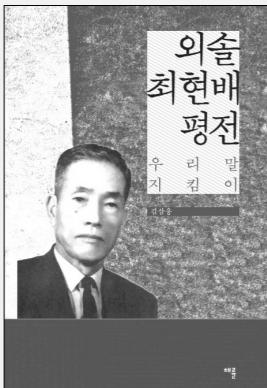
1970년대 초 박정희 유신 통치기부터 현재까지, 한국 민주화 운동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직면하며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베품목이 되어준 함세웅 신부. 현대사 주요 인물들의 삶을 집대성해온 서울대 한인섭 교수가 함 신부의 대담자로 나서, 암울한 시대에 ‘정의’의 참뜻을 몸소 보여준 사제이자 역사의 한복판에 뛰어든 운동가의 삶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한국 현대사의 비어 있던 자리를 알차게 채워냈다. 함세웅 신부는 보수와 진보를 가로지르며 적폐와 끊임없이 싸워온 한 인간의 전형이자, 순수한 지식인

의 모범으로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책 말미에 실린 연보는 그의 뜨겁고 다채로운 삶이 한국현대사 그 자체였음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출판사 서평)



외솔 최현배 평전(우리말 지킴이)

• 저은이 | 김삼웅 • 쪽수 | 286쪽 • 출판사 | 채륜



겨레의 독립 자존을 위한 초석 최현배의 우리말, 우리글 연구

우리말과 글을 지키는 일에 생을 바친 한자, 외솔 최현배의 삶을 돌아보는 책. 최현배의 ‘나라사랑’은 우리말과 우리글을 지키는 일이었다. 말과 글에는 그 겨레의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일제가 민족말살정책으로 조선어를 금지시킨 것도 같은 이유이다. 이 책은 한글날을 맞아, 한글이 위대한 문자라고 으쓱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 언어를 가졌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끼고 최현배가 왜 그토록 우리말·글을 지키는 데 헌신했는지

생각해 보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출판사 서평)

붉은전쟁 1~3 : 평더화이의 6·25

• 저은이 | 구양근 • 쪽수 | 280쪽 • 출판사 | 온북스



평더화이의 관점에서 본 한국전쟁

한국문학사상 최초의 중국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6·25 한국전쟁 이야기.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북미 회담은 바로 전쟁 중에 열린 정치협상인 것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한국전쟁을 평더화이(彭德懷)의 관점에서 소설로 써서 우리 민족의 반면교사로 삼고 싶었다. 평더화이! 그는 6·25 때 압록강을 건너온 중공군 총사령관의 이름이다. 6·25는 어차피 맥아더와 평더화이의 한 판 승부였다.

우리의 원래 목표는 남북 7·4 공동성명서에서 천명하였듯이,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우리가 외세를 배제하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 세계 5~6위권의 강력한 핵보유의 독립국이 탄생할 것이다. (프롤로그에서)



본회 창립 14주년 기념식 및 정기총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주독립 정신과 애국애족 정신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 창립된 본회가 올해 창립 14주년을 맞이하여 11월 16일(금) 서울역사 박물관에서 창립 14주년 기념식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제1부 기념식은 본회 과태원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제2부 정기총회는 이일선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제2부 정기총회에서 진행 된 경과보고 및 의결안건으로는 제14차년 사업보고와 감사보고, 임원 변동의 건, 제15차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승인의 건, 임정기념관 건립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약 100여 명의 참석자들이 자리를 빛내주었다.

본회 김자동 회장 출판기념회

본회 김자동 회장의 회고록 〈영원한 임시정부 소년〉 출판기념회가 10월 17(수)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2014년 출간된 〈임시정부의 품 안에서〉에 미처 담지 못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한국 현대사를 살아오며 시대에 순응할 수 없었던 김자동 회장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한완상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위원회 위원장,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이부영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장, 주진오 대한민국역사박물관관장을 비롯해 250여 명이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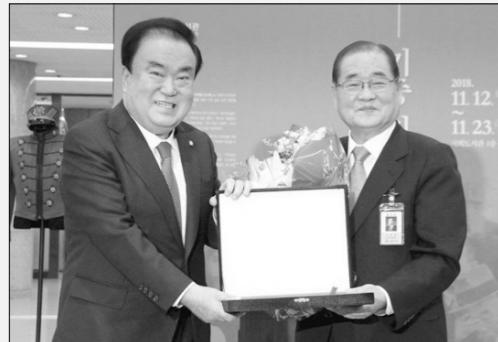




| 독립정신 | 이모저모 |

이종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장,

평생 모은 의정 기록물 6,500점 국회도서관에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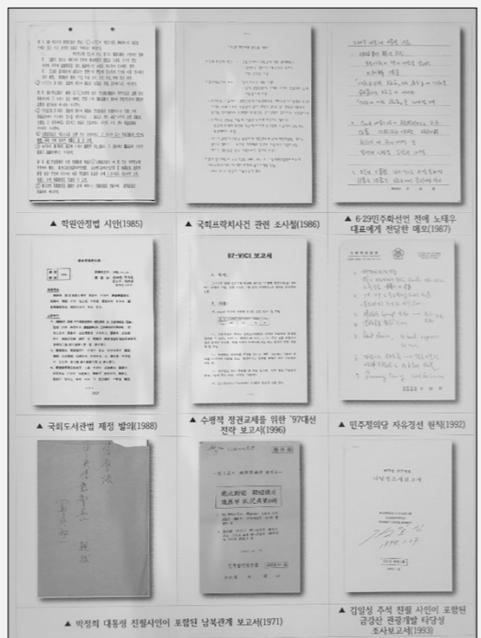


제11~14대 4선 의원과 대통령직 인수위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등을 지낸 이종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장이 평생 수집·보관해왔던 의정활동 관련 자료 6,500여 점을 국회도서관에 모두 기증했다. 11월 12일(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등 국회 내·외부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증정과 함께 주요 자료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종찬 위원장이 기증한 의정 관련 자료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한국 정치사 단면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비사(祕史)적 내용들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이종찬 위원장이 1987년 ‘6·29선언’ 직전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에게 “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자의든 타의든 정치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중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메모 등이 들어 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이종찬 위원장이 평생의 기록물 6,500여 점을 국회도서관에 모두 기증한 사례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 큰 귀감이 될 것”이라며 “국회도서관은 기증 기록물을 순차적으로 디지털화하여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소중히 보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독립정신 | 이모저모 |

제12회 임종국상 경향신문 원희복 출판국 부국장(본회 편집위원) 수상

〈친일문학론〉 등 한국 친일 문제 연구에 이정표를 세운 임종국 선생을 기리는 제12회 임종국상 시상식이 11월 9일(금)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제12회 임종국상 수상자로는 원희복 경향신문 출판국 부국장(언론부문)과 신기철 금정굴 인권평화재단 인권평화연구소 소장(학술부문)이 선정됐다.

원희복 기자는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 평전〉, 〈사랑할 때와 죽을 때 : 한·중 항일혁명가 부부 김찬·도개손 평전〉, 〈촛불민중혁명사〉 등을 냈다. 2015년 주간경향에 〈광복 70년 역사르포〉를 연재하기도 했다. 원희복 기자는 올해 본회 편집위원으로 선임되어 더욱 그 의미가 크며, 전 회원과 함께 축하한다.



제79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국가보훈처가 주최한 제79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11월 17일(토) 오전 11시 서대문형무소역 사관에서 열렸다.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 꺼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빛’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각계대표, 시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있는 순국선열 추념탑 참배를 시작으로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

억하자는 주제의 기념공연과 독립유공자 포상, 이낙연 국무총리 기념사, 순국선열의 노래 제창 등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때는 박열 의사와 함께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다 옥살이를 한 가네코 후미코 선생, 평양 숭의여학교 재학 중 만세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었던 안맥결 선생, 한국독립당 당원으로 광복군 활동을 지원한 홍매영 선생을 포함하여, 128명의 독립유공자가 건국훈장과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 등 정부 포상을 받았다.



| 독립정신 | 이모저모 |

12월 7일 (금) <김구로드 프로젝트> 음악회 개최

어바웃 클래식그룹이 주최하는 <김구로드 프로젝트> 음악회가 12월 7일(금) 오후 7시부터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열린다. <김구로드 프로젝트>는 백범 탄생 140주년을 기념, 2016년 초연을 시작으로 3년째 진행되는 공연이다. 국민에게 독립의지를 고취하고 자신에게 주었던 국민의 사랑에 보은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전국일주를 했던 백범의 발자취를 따라 공연하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가 협력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한다.



조선민족대동단 후손 장학금 시상



조선민족대동단은 1919년 상해임시정부와 연계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한 비밀결사단체로 동농 김가진 선생이 총재로 활동했다.

조선민족대동단기념사업회는 대동단 후손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하고 있으며, 11월 10일(토) 본회 사무실에서 제 6회 장학금 시상식을 실시하였다. 장학금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서훈자명 (관계)	성 명 (학교)	금 액
김영철(증조부)	김세중 (연세대)	1,000,000 원
동창률(외고조부)	김민지 (양구여고)	500,000 원
최익환(증조부)	최서준 (송림중)	500,000 원

※ 장학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 독립정신 | 이모저모 |

우리 헌법의 뿌리 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국가문화재 등록 예고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제헌헌법의 역사적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이 나라의 공식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임시정부 주요 인사였던 조소앙(1887~1958)이 삼균주의(三均主義)를 바탕으로 건국 방침을 적은 친필 문서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고 11월 6일(화) 발표했다.

원고지 10장 분량으로, 총강(總綱), 복국(復國), 건

국(建國)이란 3개의 장으로 나뉘어진다. 개인·민족·국가 사이의 균등과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이라는 삼균주의 원리를 통해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안을 기초해 만들어진 건국강령은 1941년 11월 28일 중국 충칭에 있던 임시정부의 국무회의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 통과됐고, 1948년 제헌헌법의 뼈대가 됐다. 문화재청은 “임시정부가 광복 뒤 어떠한 국가를 세우려 했는지를 밝혀주는 중요한 자료”라며 “조소앙이 고심하여 수정한 흔적 등이 그대로 남아있어 더욱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미스터션샤인이 사랑한 “여성의병장” 토크콘서트 개최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가 10월 31일(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미스터 션샤인이 사랑한 여성의병장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묻혀진 여성의병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집중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1부 공연에서 창작국악그룹 ‘아마씨’가 ‘가을밤’, ‘없는 이름’, ‘설움타령’ 등 전통 성악과 연희를 선보였다.

2부 토크콘서트에서는 박창식 한겨레 사업국장의 진행으로 강정숙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기획위원, 손석춘 건국대 교수, 장하림 애니메이션 감독, 박미현 강원도민일보 이사가 항일 여성의병에 대해 토론을 진행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해외 안장됐던 민춘기·김산해 애국지사 유해 국내 봉환



민춘기 애국지사



김산해 애국지사

일본과 중국에 각각 안장됐던 민춘기·김산해 애국지사 등 유해 2위가 11월 15일(목) 국내로 봉환됐다. 국무총리실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두 애국지사의 유해를 봉환, 이날 오후 2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관으로 봉영식이 열렸다.

민춘기 애국지사는 1942년 1월 오사카에서 동지들과 함께 독립운동에 헌신하기로 맹세한 뒤, 동지 규합과 동포에 대한 지도계몽 등 민족의식 고취활동 중 같은해 10월 15일 일제에 체포돼 징역 3년을 받았다. 해방 이후 오사카에서 거주하던 중 지난 5월 16일 타계했고, 정부는 그의 공적을 인정해 지난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김산해 애국지사는 1926년 1월 중국 연길현에서 동진청년회 부회장 겸 교육부장, 1928년 1월 재(在)동만(東滿)조선청년총동맹 중앙집행위원을 역임하고, 같은 해 5월 고려공산청년회 만주총국 동만도(東滿道)에 들어가 용정군(龍井郡) 동성용(東盛湧) 세포원으로 활동하다 일제에 체포돼 징역 2년을 받았다. 김산해 지사는 해방 이후 중국 연변에서 거주 중 1970년 9월 26일 타계했으며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안장됐다. 정부는 지사의 공적을 인정해 2017년 건국포장을 추서했다.

문화재청, 대한제국 황제의 전통 복식과 서양식 복식을 한자리에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소장 오성환)는 10월 12일(금)부터 12월 12일(수)까지 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1층 전시실에서 ‘대한제국 황제 복식’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대한제국 황실의 의·식·주’에 관한 주제를 연차적으로 기획하여 선보이는 특별전의 첫 시작으로, 올해는 ‘의(衣)’에 해당하는 대한제국의 황제 복식을 다룬다.

전시는 고종의 생애 흐름을 따라 조선의 왕이 입었던 홍룡포, 대한제국 성립 이후 만들어진 대한제국 황제의 새 복식, 고종 퇴위 이후 만들어진 태황제 예복 등 고종의 복식 8종과 근현대 복식 유물 8종 등 총 16종을 소개한다.

이와 더불어 대한제국 황제 복식 성립 전후의 문무관복의 변화상도 관련 유물과 사진 자료를 통해 소개한다. 특히, 그동안 실물이 확인되지 않았던 1906년 개정된 문관대례복 유물(한국맞춤양복협회 소장)도 이번 전시를 통해 처음 공개된다.



<피로 묵(墨) 삼아 기록한 꽃송이> 출판 기념 북콘서트 개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에 게재된 시(詩) 모음집 <피로 묵(墨) 삼아 기록한 꽃송이> 출판 기념 북콘서트가 열린다. 북콘서트는 11월 30일(금)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오후 5시부터 진행된다. 본회가 대한민국 100년의 의미를 새기기 위한 것으로, <독립신문>에 게재된 시들의 시대 배경과 문학적 의미 해설을 곁들인 음악회이다. 배우 이대연이 시를 낭독하고, 바리톤 김지우, 아코디언 김경호, CTS 강북소년소녀합창단 등이 출연한다. 시집 출간과 북콘서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 독립정신 | 이모저모 |

송년회 안내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송년의 밤’ 행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올해 본회는 여러분의 사랑과 후원 덕분에 창립 14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창립 14주년을 축하해주시고, 2018년의 끝자락을 모두 함께하여
기쁜 마음으로 보내주었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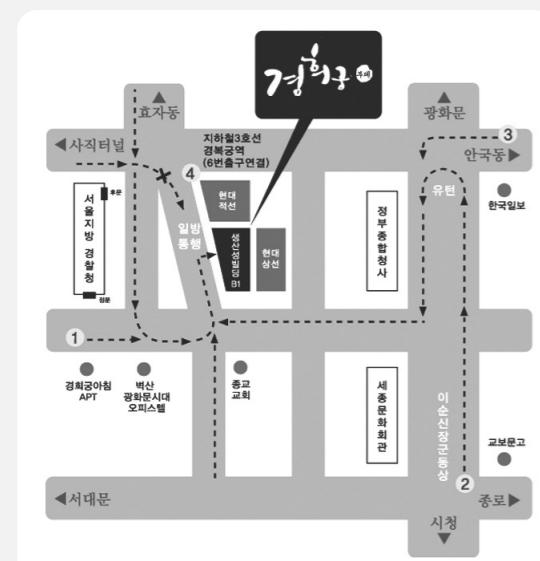
12월 6일. 또 하나의 추억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 일 시 : 2018년 12월 6일(목) 18시~

* 장 소 : 경희궁 뷔페(지하철 경복궁역 6번 출구. 생산성빌딩 지하1층)

* 참석 회비 : 일반인 3만원, 학생 1만원

* 문 의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02)3210-0411



- ① 서대문, 독립문, 홍제동에서 오실 때(사직터널 진입)
- ② 시청에서 광화문 오실 때
- ③ 안국동에서 오실 때
- ④ 지하철 / 버스 이용하실 때
지하철 : 경복궁역에서 하차 6번 출구로 연결
버스 : 171, 272, 606, 7020, 7025(적선동에서 하차)
※ 주차장을 지하 2, 3, 4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부포상자 명단】

순국선열의 날 정부포상자 명단(128명)

◆ 전국훈장 28명, 전국포장 17명, 대통령표창 83명 ◆

▣ 건국훈장 애국장 (9명)

가네코후미코 金子文子 (일본방면)	김태황 金泰璜 (3·1운동)	손봉선 孫鳳善 (만주방면)
강영갑 姜永甲 (국내항일)	김택영 金澤榮 (계몽운동)	장봉현 張奉賢 (3·1운동)
김응호 金應浩 (3·1운동)	김학준 金學俊 (3·1운동)	최영암 崔永岩 (만주방면)

▣ 건국훈장 애족장 (19명)

김달섭 金達涉 (3·1운동)	박시연 朴時淵 (3·1운동)	장성란 張聖蘭 (3·1운동)
김봉길 金鳳吉 (3·1운동)	백광필 白光弼 (3·1운동)	장수욱 張秀或 (국내항일)
김용환 金容煥 (3·1운동)	서오룡 徐五龍 (국내항일)	조복금 趙福今 (국내항일)
김좌봉 金佐鳳 (의열투쟁)	우희제 禹禧濟 (3·1운동)	조순식 趙純植 (국내항일)
김학수 金學洙 (3·1운동)	유기윤 柳冀允 (3·1운동)	한능진 韓能震 (국내항일)
김형갑 金炯甲 (국내항일)	이겸호 李謙浩 (3·1운동)	
박문희 朴文嬉 (국내항일)	이우성 李愚誠 (국내항일)	

▣ 건국포장 (17명)

강만조 康萬祚 (국내항일)	안맥결 安麥結 (국내항일)	최동림 崔東林 (국내항일)
김구영 金龜泳 (3·1운동)	양기형 梁基亨 (일본방면)	최병수 崔秉壽 (국내항일)
김대순 金大順 (미주방면)	이계창 李桂昌 (3·1운동)	최판열 崔判烈 (국내항일)
김창진 金昌珍 (3·1운동)	정군학 鄭君學 (국내항일)	태동춘 太東春 (국내항일)
김추신 金秋信 (국내항일)	조아라 曺亞羅 (국내항일)	홍매영 洪梅英 (중국방면)
신용주 慎鏞周 (국내항일)	주길동 朱吉桐 (국내항일)	



◆ 대통령표창 (83명)

강봉조 姜鳳祚 (3·1운동)	김항률 金恒律 (국내항일)	이동화 李東華 (학생운동)
강석선 姜石先 (3·1운동)	명제록 明濟祿 (3·1운동)	이병호 李丙浩 (국내항일)
강성학 姜聖學 (3·1운동)	문도치 文道致 (3·1운동)	이봉규 李奉奎 (국내항일)
강태산 姜泰山 (3·1운동)	문복숙 文福淑 (3·1운동)	이성규 李成圭 (3·1운동)
강화선 康華善 (3·1운동)	박기복 朴基福 (국내항일)	이소열 李小烈 (3·1운동)
권계원 權桂元 (3·1운동)	박두성 朴斗成 (3·1운동)	이수희 李壽喜 (학생운동)
김건신 金健信 (국내항일)	박성돌 朴聖奩 (3·1운동)	이양식 李養植 (3·1운동)
김계정 金桂正 (국내항일)	박성희 朴星嬉 (학생운동)	이은배 李殷培 (3·1운동)
김광서 金廣西 (3·1운동)	박은감 朴恩感 (국내항일)	이지봉 李枝奉 (3·1운동)
김덕빈 金德彬 (3·1운동)	박재각 朴載珏 (3·1운동)	이훈영 李勳榮 (3·1운동)
김마리아 金瑪利亞 (학생운동)	박하경 朴夏卿 (국내항일)	임의식 林義植 (3·1운동)
김석은 金錫恩 (미주방면)	박희경 朴羲庚 (3·1운동)	장윤덕 張潤德 (3·1운동)
김순실 金淳實 (3·1운동)	부기준 夫己準 (학생운동)	장활이 張活伊 (3·1운동)
김양선 金良善 (국내항일)	부병각 夫秉恪 (3·1운동)	정복수 鄭福壽 (3·1운동)
김여찬 金麗贊 (국내항일)	부승림 夫升琳 (국내항일)	정술문 鄭述文 (3·1운동)
김영손 金榮懸 (3·1운동)	소은숙 邵恩淑 (학생운동)	정판동 鄭判同 (3·1운동)
김영순 金榮淳 (3·1운동)	송만섭 宋萬燮 (3·1운동)	조병섭 曹秉涉 (국내항일)
김영식 金永植 (3·1운동)	신동악 申東岳 (3·1운동)	조영탁 趙榮鐸 (3·1운동)
김영찬 金榮贊 (3·1운동)	신용점 慎鏞點 (국내항일)	조현원 趙鉉元 (3·1운동)
김영헌 金榮憲 (3·1운동)	신일선 慎一先 (국내항일)	채동팔 蔡東八 (3·1운동)
김영훈 金泳勳 (3·1운동)	양왕석 梁旺錫 (3·1운동)	최금수 崔金洙 (3·1운동)
김오복 金五福 (국내항일)	오인식 吳寅植 (국내항일)	최문순 崔文順 (국내항일)
김인송 金仁松 (국내항일)	유종식 柳宗植 (3·1운동)	최성반 崔聖盤 (학생운동)
김인수 金仁守 (3·1운동)	윤기호 尹起鎬 (3·1운동)	최애경 崔愛敬 (3·1운동)
김일국 金日菊 (3·1운동)	윤보영 尹甫榮 (3·1운동)	한덕균 韓德均 (국내항일)
김종권 金鍾權 (일본방면)	윤오례 尹五禮 (학생운동)	현도명 玄道明 (국내항일)
김진찬 金辰贊 (3·1운동)	이규희 李圭恢 (3·1운동)	황금채 黃金彩 (3·1운동)
김태안 金泰晏 (3·1운동)	이대수 李大壽 (국내항일)	

-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2018년 9월, 10월 회비납부자 명단 ◆

회원명	9월	10월	회원명	9월	10월	회원명	9월	10월
김대현	15,000	30,000	김률근	10,000	10,000	이영국	10,000	
이학효	10,000	10,000	김삼웅	20,000	20,000	이영숙	10,000	10,000
박정근	30,000	30,000	김성곤	10,000	10,000	이윤옥	20,000	
오정섭	20,000	20,000	김명방	10,000	10,000	이응국	5,000	5,000
함세웅	30,000		김영일	10,000	10,000	이재선	5,000	5,000
강찬모	20,000	20,000	김용수	5,000	5,000	이종찬	100,000	100,000
권영관	10,000	10,000	김은수	10,000	10,000	이창윤	10,000	10,000
김봉현	30,000	30,000	김자동	100,000	100,000	이 철	10,000	
김빛나	10,000	10,000	김재홍	10,000	10,000	이준웅	100,000	
김성배	10,000	10,000	김정인	20,000	20,000	이학노	20,000	20,000
김숙정	50,000	50,000	김종규	10,000	10,000	이현진	10,000	10,000
김 위	20,000	20,000	김중숙	10,000	10,000	이호현	20,000	
김의정	20,000		김태원	10,000	10,000	이후삼	10,000	10,000
김태동	30,000	30,000	김학근	20,000	20,000	임재경	10,000	10,000
김판수	5,000	5,000	김혜련	20,000	20,000	임홍재	10,000	
김희선	10,000	10,000	김호진	10,000	10,000	장두영	10,000	10,000
남만우	100,000	100,000	노수문	20,000	20,000	장두원	20,000	20,000
노옹래	20,000	20,000	노영택	10,000	10,000	전영복	10,000	10,000
박년희	10,000	10,000	류한수	30,000	30,000	정관훈	100,000	100,000
박녹삼	10,000	10,000	민향선	30,000	30,000	정민규	10,000	10,000
박아영	10,000	10,000	박덕진	10,000	10,000	정범구	10,000	10,000
박의란	20,000	20,000	박용규	10,000	10,000	조명숙	10,000	10,000
박인석	10,000	10,000	박유진	10,000	10,000	조선희	10,000	10,000
박재민	10,000	10,000	박은봉	30,000	30,000	조세현	10,000	10,000
빙인섭	30,000	30,000	박제선	30,000	30,000	조용욱	10,000	10,000
서봉수	10,000	10,000	박형순	10,000	10,000	조인형	10,000	10,000
서홍관	30,000	30,000	배상윤	5,000	5,000	조정훈	30,000	30,000
신명식	10,000	10,000	배해원	10,000	10,000	주세영	30,000	30,000
오상균	10,000	10,000	백낙청	10,000	10,000	천정배	10,000	10,000
윤용황	10,000	10,000	백부원	10,000	10,000	최문성	10,000	10,000
윤종순	5,000	5,000	변병식	100,000	100,000	최문순	10,000	10,000
이계환	10,000	10,000	서동희	5,000	5,000	최희주	10,000	10,000
이양순	20,000	20,000	석혜진	10,000	10,000	한의석	10,000	10,000
이우재	10,000	10,000	신태영	10,000	10,000	한홍구	20,000	20,000
이일선	20,000	20,000	신흥범	10,000	10,000	홍범식	20,000	20,000
이진규	10,000	10,000	심옥주	10,000	10,000	홍석천	5,000	5,000
이창중	20,000	20,000	심재권	30,000	30,000	홍용희	10,000	10,000
이항중	30,000	30,000	안재웅	10,000	10,000	횡용만	5,000	5,000
임진택	5,000	5,000	양인선	10,000	10,000	활인자	30,000	30,000
장상록	10,000	10,000	엄기남	10,000	10,000	신윤경	500,000	500,000
전우규	30,000	30,000	염승훈	10,000	10,000	조대원	10,000	
정만기	30,000	30,000	우상호	10,000	10,000	이병국	300,000	300,000
정철승	30,000	30,000	유덕곤	10,000	10,000	강만길		20,000
정현주	50,000	50,000	유영일	30,000	30,000	이해나		20,000
조영빈	5,000	5,000	윤종준	10,000		장재령		10,000
차영조	20,000		윤철호	100,000	100,000	이정재		600,000
최권행	30,000	30,000	윤한옥	10,000	10,000	이정호		50,000
최수희	30,000	30,000	이규중	30,000	30,000	원영애		20,000
황명하	10,000	10,000	이기자	20,000	20,000	권오영		10,000
강재욱	20,000	20,000	이동진	20,000	20,000			
길사원	10,000	10,000	이범증	100,000				
김광림	30,000	30,000	이상준	100,000	100,000			
김광재	5,000	5,000	이상준	100,000	100,000			
김동수	30,000	30,000	이상훈	20,000	20,000			
김동현	10,000	10,000	이석문	10,000	10,000			

2018년 9월, 10월 특별회비

회원명	9월	10월
(주)오토	18,000,000	18,000,000
김광재		1,000,000



(우)03173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길 19 로얄빌딩 602호
TEL (02) 3210-0411, 3210~0422 FAX (02) 732-2870
E-mail kpg1919@korea.com http://www.kopogo.com

◆ 입회원서 ◆

이 름 (한자)		연락처	핸드폰 자 택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주 소			
직 업		소 속	
비 고			

본인은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설립목적에 적극 찬동하고,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다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입회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 CMS자동납입 신청서 ◆

은행명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	1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출금시작월	()월
납부금액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4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10만원 <input type="checkbox"/> 20만원 <input type="checkbox"/> 자유지정금액 <input type="checkbox"/> (원)		

* 납부하신 회비는 지정 기부금 영수증을 1월에 발행하며 연말정산에 경상비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후 FAX(02-732-2870)으로 송부 바랍니다.

서대문형무소와 독립운동가 ③

박의송과 서대문형무소

박의송(朴義松)은 평안남도 안주에서 3·1독립만세운동에 가담하여 서대문감옥에 수감되었다. 서대문감옥 수감 기록인 일제 감시대상 인물카드에 그의 기록을 살펴보면 연령은 개국 495년 (1886년) 7월 2일생으로 되어 있다. 신장은 척·촌·분으로 표시되어 5척 6촌 7분이다. 미터법으로 표시하면 약 170.1cm가 되는데 1880년대 태어난 세대인 것을 감안하면 당시로서는 평균보다 큰 키에 속한다. 수감자 기록카드 앞면에는 정면을 응시하고 찍은 사진이 한 장 있다. 약간 두툼한 겨울철 수인복을 입고 있으며, 왼쪽 어깨에서 명치 방향의 사선으로 수인번호 '一八〇五'라고 쓰인 인식표와 가슴에는 가로 방향으로 '박의송 一八〇五'라고 쓰인 인식표를 함께 붙이고 촬영했다. 수감규정 따라 위생 때문에 머리는 삭발에 가까운 수준으로 짧게 자른 상태이며, 차렷 자세로 입을 굳게 다물고 사진기의 윈幡을 응시하고 있다. 특징은 없다(ナシ)고 작성되어 있다. 강제병합 후 10년이 안된 시점에 만들어진 수감자 기록카드이기에 촬영 일자를 적는 곳이 없다. 상단 오른쪽에는 지문번호가 있는데 16666-86666이라고 적혀 있다. 이 지문번호는 당시 여러 제국주의 국가에서 이미 표준화되어 번호만 알 수 있으면 지문을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재소자 신분장이라는 또 다른 기록물에도 지문번호가 있다.

뒷면을 보면 본적은 평안남도 안주군 안주 칠성 78번지인데 주소와 같다. 출생지는 평안남도 안주군 입석인데 태어나서 고향을 떠나지 않고 생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분은 상민(常民)이며 직업은 잡화상이다. 처벌될 당시 죄명은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保安法違反)으로 형명형기에 징역 2년이라고 되어 있다. 법원 판결 날짜와 형 시기가 대정8년 5월 5일로 같기에 법원에서 판결이 끝나자 곧장 감옥으로 이송된 것으로 보인다. 평양복심법원에서 재판 받았으며 집행감옥은 서대문감옥이다.

판결문에서 박의송은 만국평화회에서 정의 인도를 주장하고 민족자결론을 반포함에 「조선매일신보」에도 기재되고 내심 기뻐하고 있었는데 김화식이 조선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설명을 해서 온 인가(人家)에 가서 10여 명과 함께 이 선언서를 등사하여 동 군내에 반포하는데 현병에게 잡혀 평양지방법원, 복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억울하여 항소한 것이다. 그는 자유독립의 희망에 대해 세계 공법에 따라 동정(同情)을 받으려는 것은 하등의 죄가 아니므로 속히 무죄방면이 있기를 엎드려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함께 독립선언서배포에 참여한 사람들과 같이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초범이기에 대정9년 6월 만기 출소했고 이후 고향으로 돌아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실제 그는 1919년 3월 1일 김찬성·김화식·김희주·김병제·김병건·전성걸·전예순·김영원·이인택·최승준 등과 함께 안주읍의 독립만세시위를 주동했다. 3월 1일 오후 5시 읍내 서문앞에 많은 군중이 모이자, 그는 청년대표들과 함께 이들에게 독립선언서를 나누어 준 뒤, 군중과 함께 건인리(建仁里)·청교리(淸橋里)로 시위행진을 전개하였다. 그는 결국 현병대에 체포되어 고등법원에서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 혐의로 2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고문의 여파로 건강이 악화되어 병보석 되었으나, 곧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제공>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송년의 밤’ 행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올해 본회는 여러분의 사랑과 후원 덕분에 창립 14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창립 14주년을 축하해주시고, 2018년의 끝자락을 모두 함께하여

기쁜 마음으로 보내주었으면 합니다.

12월 6일. 또 하나의 추억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 김자동

- * 일 시 : 2018년 12월 6일(목) 18시~
 - * 장 소 : 경희궁 뷔페(지하철 경복궁역 6번 출구, 생산성빌딩 지하 1층)
 - * 참석 회비 : 일반인 3만원, 학생 1만원
 - * 문 의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02-3210-0411
경희궁 뷔페 02-734-7411~3

